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Between RCPL and Jeonju Municipal Library

이 승 채(Seung-Chae Lee)**

〈 목 차 〉

- | | |
|---------------|------------------|
| I. 서 론 | III. 도서관의 비교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 도서관의 건물 |
| 2. 선행연구 개관 | 2. 예산 및 조직구조 |
| 3. 연구방법 및 제한점 | 3. 정보매체 및 이용 현황 |
| II. 비교 대상 도서관 | 4. 홍보 및 외부 자원 활용 |
| | IV. 논 의 |
| | V. 결론 및 제언 |

초 록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RCPL이 예산, 직원수 등이 훨씬 많고 정보 매체의 양과 질, 이용횟수, 홍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의 '지역민의 회원수 비율', 정보 매체의 질과 양, 대출건수, 독서회 참가자수, 홍보 등이 RCPL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주시립도서관이 많았고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방문자 수도 전주시립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서관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을 시민과 행정당국에게 잘 홍보하여야 한다. 더불어 향후에 공공도서관에서도 기부금 모집 등록을 통하여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비교연구, 전주시립도서관, 리치랜드카운티 공공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ompare Jeonju Municipal Library(JML) and RCPL(Richland County Public Library). It was expected that the comparison would give public librarians some suggestions as to their libraries' strengths and weaknesses. JML has shown some weaknesses compared to RCPL, specially, in the quality and quantity sections of resources, budgets, areas of library, public relations, circulations, reading club enrollment are strengths of RCPL, compared to JML. However, JML has the strength in the participation of a lot of volunteers and visitors to the library. JML should extend and publicize the high service quality as the citizens' library.

Keywords: Public library, RCPL, Jeonju Municipal Library, Compar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200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독서문화연구소 소장(create@jbnu.ac.kr)

• 접수일: 2010년 2월 23일 • 최초심사일: 2010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10년 6월 25일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학회 모임에서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연구자의 언어와 도서관 실무자의 언어가 서로 다른 상황이어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원로 교수의 견해에 크게 공감한 바 있다.¹⁾ 실제로 도서관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문헌정보학자들이 발표하는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의 연구논문들이 실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도서관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현학적인 내용보다 실무에 가까운 내용, 추상적인 내용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은 논문들이 더 많이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 공공도서관의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일은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제도, 서비스 또는 향후의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 도서관에 대하여 제시하고 분석하는 일만을 통해서서는 우리나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문헌정보학계에서 비교도서관학의 방법론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콜링스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²⁾

비교도서관학은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영향력이 지대한 배경 요소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서로 다른 환경(대개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도서관 발전, 실제업무, 도서관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도서관의 발전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고 도서관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이 된다.

콜링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배경 요소의 맥락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인 비교도서관학을 통하여 도서관 발전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문제를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의 국가간 비교 연구를 함에 있어서 대개의 경우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두 지역의 도서관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 지역들을 비교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시골에 있는 작은 공공도서관과 수백명이 근무하는 미국의 대도시 공공도서관을 비교하는 일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우수한 도서관 가운데 우리

1)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년 신년하례회에서 박준식 교수의 하례사 내용임.

2) Dorothy G. Collings, "Comparative Librarianship," in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ited by Allen Kent and H. Lancour, Vol.5(New York : Marcel Dekker, 1971), p.492.

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환경 속에 있는 도서관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는 일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선진국의 도서관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부족한 점을 파악하여 선진국 도서관의 좋은 점을 우리나라 도서관에 접목시키는 작업이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정 도서관을 그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선진국의 도서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서비스 실태를 분석한 연구는 발견하기 힘들다.

본 연구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방문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다. 이때 이곳의 주민들과 지역 문화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지역의 특성들이 본 연구자에게 익숙한 우리나라 전주지역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리치랜드 카운티 공공도서관의 환경은 우리나라 전주 지역 공공도서관의 환경과 유사한 점이 많아서 두 공공도서관을 비교 연구할 경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전주시립도서관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RCPL(Richland County Public Library, 리치랜드 카운티 공공도서관)을 조사하여 도서관의 건축 면적, 예산 및 조직구조, 정보매체 및 이용 현황, 홍보 및 외부 자원의 활용 등의 실태를 서로 비교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전주시립도서관에서 향후에 보강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전주시립도서관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들은 유사한 환경과 대동소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는 많은 공공도서관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개관

이제까지 비교도서관학과 관련된 이론을 다룬 논문들은 많지 않다. 비교도서관학 이론을 다룬 연구들로는 남태우의 “비교도서관학의 이론”³⁾, 김용성의 “비교도서관학의 학문적 특성”⁴⁾, 그리고 최은주의 “비교도서관학의 연구방법론”을 들 수 있다.⁵⁾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미국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들은 많이 있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미국 공공도서관의 실태를 세부 분야별로 밝힌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박은자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⁶⁾를 한 바 있고 또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특수장서 현황을 조사 연구하였다.⁷⁾ 임형연은 미국 보스턴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의 프로그

3) 남태우, “비교도서관학의 이론,” 도서관학보(중앙대), 제4집(1983, 10), pp.191-212.

4) 金容成, “比較圖書館學의 學問的 特性,” 人文科學研究論叢(明知大學校 附設 人文科學研究所), 제9권(1992, 2), pp.73-89.

5) 崔銀珠, “比較圖書館學의 研究方法論,” 圖書館, 270(1984, 2), pp.17-34.

6) 박은자,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2호(2005, 3), pp.5-33.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1권 제2호)

램에 대한 관찰 조사를 통하여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연구하였고⁸⁾ 장윤금은 미국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⁹⁾ 오동근은 공공도서관의 외부 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미국 공공도서관에서 어떻게 외부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혔다.¹⁰⁾ 박철완은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를 분석하였고¹¹⁾ 차미경은 미국 공공도서관장의 인식 조사를 통하여 도서관기준의 유용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¹²⁾ 도태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P도서관과 그 주변의 도서관들의 서비스를 개관하고 이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지향하고 개발해야 할 서비스를 제안하였다.¹³⁾

한국과 미국의 특정 서비스를 비교하여 밝힌 연구도 있다. 정혜경은 한국과 미국의 취학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시행한 바 있다.¹⁴⁾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주요한 내용들 즉 조직구조, 자료 및 이용현황, 건축, 홍보 및 외부 자원 활용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특정 지역의 특정 도서관을 통하여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여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것 같다.

3. 연구방법 및 제한점

한국과 미국의 비교대상이 된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RCPL과 우리나라의 전주시립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RCPL 및 전주시립도서관의 직원들과 면담하였다. 또 해당 도서관의 홈페이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팸플릿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부족한 점은 이메일과 전화를 통하여 문의하여 보강하였다. 각종 통계자료는 RCPL, 전주시립도서관, 전주시청 등의 홈페이지, 웹디비(위키피디아)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속에 있는 일부 통계가 대략적인 수치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미국 리치랜드 카운티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도서관(South Carolina State Library)이 소재하고 있어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있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또 전주시 덕진구에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이 위치해

7) 박은자, “공공도서관의 장서 현황 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0권, 제2호(2006. 6), pp.79-101.
8) 임형선, “아동교육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4. 6), pp.393-414.
9) 장윤금, “미국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평가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1호(2005. 3), pp.267-285.
10) 오동근, “공공도서관의 외부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8. 3), pp.73-97.
11) 박철완, “미국 주 도서관 서비스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p.203-218.
12) 차미경, “공공도서관 계획과 평가에 있어서 도서관기준의 유용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3권, 제2호(1999. 6), pp.69-88.
13) 도태현, “공공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131-150.
14) 정혜경, “한국과 미국 공공도서관의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9권, 제1호(2005. 3), pp.295-320.

있고 이곳의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관할 기관이 상이하여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II. 비교 대상 도서관

리치랜드 카운티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그린빌 카운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카운티로서 2007년도 인구가 364,001명이다.¹⁵⁾ 오래전부터 리치랜드 카운티의 일부에 행정중심지역인 콜롬비아 시가 소재하였는데 현재는 시의 일부가 인접한 랙싱턴 카운티로 확장되었다. 콜롬비아 시는 인구가 2008년도 현재 127,029명으로 추정되고 전체 728,063명의 인구를 가진 메트로폴리탄 콜롬비아의 중심이다.

리치랜드 카운티의 특징으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청사 소재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정치·문화·교육의 중심지라는 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상황, 지역민들의 보수적 기질, 남북전쟁에서 패한 이후 남군의 중심지역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울분을 간직하였던 지역민 정서¹⁶⁾, 다수의 역사적 유적지, 다수의 전통적 양식의 건축물, 단시간에 해안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RCPL은 이곳에 위치하여 지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이다. 이 도서관은 1개의 본관과 10개의 분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David Warren이 관장으로 재직중이던 2001년도에 RCPL은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the Year in 2001)으로 지정되었고 동남부 지역의 리더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05년도에 RCPL은 미국전역의 공공도서관 평가를 하는 헨넨 미공공도서관평가순위(Hennen's American Public Library Ratings)의 "25만명 내지 50만명 미만의 주민에게 봉사하는 도시도서관(urban libraries)" 분야에서 8위에 선정되었다.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는 RCPL 외에도 플로리다 주 사라스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10위로 선정된 것을 포함하여 2개의 도서관이 100위 안에 들었다.

-
- 15) 위키피디아 사전을 보면 2007년도 리치랜드 카운티의 인구는 364,001명이고 리치랜드 카운티 인구 1인당 평균소득이 20,794달러로 나와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Richland_County,_South_Carolina> [cited 2010. 2. 15]. 즉 이곳의 평균소득은 우리나라 2008년도 평균소득인 19,115달러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GDP_(nominal)_per_capita)> [cited 2010. 2. 15]. 따라서 이 곳 리치랜드 카운티의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높은 도시로 일부 지역보다 소득이 낮다. 또한 미국을 50개 지역으로 나누어 소득을 분석한 항목을 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1인당 평균소득은 45번째에 해당하는 31,884달러(미국 평균은 39,751달러)이다. <<http://www.bea.gov/newsreleases/regional/spi/2009/pdf/spi0309.pdf>> [cited 2010. 2. 15].
- 16) 전통적으로 남부지역 사람들은 남북전쟁시에 북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민간인 학살의 책임이 있는 링컨에 대해 분개해왔고 아직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지역과 조지아 지역의 노인 세대 중 일부는 링컨을 싫어한다(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문헌정보학부 박사과정 이수자가 본 연구자의 설문에 응답한 내용임).

우리나라의 전주시는 전라북도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이다. 사회·경제적 상황 때문에 1960년대에 250만명을 초과하기도 하였던 인구가 2000년대에 180만 명 이하로 감소한 전북 지방의 중심지라는 점, 63만여 명의 인구,¹⁷⁾ 지역민의 보수적 기질, 역사적 유산의 풍부함, 수많은 한옥들이 소재한 전주한옥지구, 한 시간 내에 해안가에 도달할 수 있는 환경 등도 이 지역의 특징들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은 상당 부분 미국 리치랜드 카운티의 특징들과 유사하다.

전주시는 행정구역이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뉘어 있다. 완산구에는 본관(완산도서관), 삼천도서관, 서신도서관 등 3개 도서관이 있고 평화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덕진구에는 금암도서관, 인후도서관, 송천도서관의 3개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 소속의 1개 도서관이 별도로 존재한다. 완산구는 인구가 354,393명(외국인 2,134명 포함)이고 도청, 도의회, 시청, 시의회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한옥지구 등이 소재하고 있다. 완산구의 이런 특징들은 리치랜드 카운티와 유사하여 이 두 지역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완산구에 소재한 시립도서관 본관이 완산구와 덕진구 두 지역의 시립도서관을 모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립도서관 전체와 RCPL을 비교하기로 결정하였다.

Ⅲ. 도서관의 비교

1. 도서관의 건물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물의 유무가 공공도서관의 유무를 의미할 만큼 공공도서관의 건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 손꼽힌다. 따라서 건물의 수와 면적은 공공도서관을 평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표 1>은 전주시와 리치랜드 카운티에 소재한 공공도서관 본관 및 분관의 건축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전주시립도서관의 전체 면적은 RCPL의 전체 면적보다 적다. 그런데 특이하게 느껴지는 점은 RCPL의 경우 본관의 크기가 전체 도서관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주시립도서관은 본관의 크기가 비교적 크지만 미국과 비교하면 본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 RCPL에서 본관의 비중이 큰 이유는 본관이 카운티 어디에서도 도달하기 쉬운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면서 전체 도서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 본관이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RCPL의 분관들은 작지만 각 분관에서 본관의 도서를 신청할 경우 본관에서 분관으로 배달하여 주기 때문에 수많은 도서를 분관에서 대출할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다른 분관에서 본관에 있는 도서를 신청하여 배달

17) 전주시 홈페이지,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download_file/life_statistics/01.pdf> [인용 2010. 2. 15].

받는 서비스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주시립도서관에 비하여 RCPL의 대출 서비스 이용자 들은 본관이 크고 분관이 작아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불편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표 1〉 전주시립도서관과 RCPL의 건축 면적(㎡)

전주시 공공도서관		RCPL	
공공도서관 본관(완산도서관)	6,626	Main Library	22,483
금암도서관	2,712	JOHN HUGHES COOPER BRANCH LIBRARY	929
서신	2,594	WHEATLEY BRANCH LIBRARY	372
삼천	2,665	EASTOVER BRANCH LIBRARY	240
송천	3,367	SOUTHEAST REGIONAL LIBRARY	1,858
인후	2,519	NORTHEAST REGIONAL LIBRARY	1,672
소 계	20,483	NORTH MAIN BRANCH LIBRARY	929
평화분관(건축 중)	2,984	ST. ANDREWS REGIONAL LIBRARY	1,208
합계(건축 예정 도서관 포함)	23,467	THE LINK, BALLENTINE	214
		BLYTHEWOOD BRANCH LIBRARY	372
		SANDHILLS BRANCH LIBRARY	929
		합계	31,206

전주시립도서관은 전주에서 비교적 많은 문화 강좌들을 본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이용하여야 하는데 교통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또 건물이 오래되고 우중충한 느낌을 주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RCPL의 본관은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손꼽히는 훌륭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초현대식 건물이다.

RCPL은 본관과 분관을 합하여 11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6개의 도서관을 보유한 전주시립도서관의 수와 비교할 때 1.8배 가량의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다.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도서관 수를 비교함에 있어 전주시에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을 포함시키면 RCPL은 전주시립도서관의 1.6배의 도서관을 보유하게 된다. 전주시 인구가 리치랜드 카운티 인구의 두 배 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주시의 인구 대비 도서관수가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본관과 분관 전체를 합한 건축 면적은 도서관 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RCPL의 전체 건축 면적은 31,206㎡로서 전주시립도서관의 건축예정 도서관을 포함한 전체 건축 면적 23,467㎡보다 훨씬 크다. 특히 RCPL본관의 건축 면적(22,483㎡)은 전주시립도서관 본관 및 분관 전체의 건축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20,483㎡)보다 더 큰 건물이다. 현재 전주에서 건축 중인 도서관을 제외할 경우 전주시립도서관의 전체 면적은 20,483㎡로서 RCPL 본관의 크기(22,483㎡)에 미치지 못한다. 전주시의 인구가 리치랜드 카운티의 2배 가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 대비 도서관 면적은 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전주시 '작은 도서관'의 건축 면적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전주시 '작은 도서관' 건축면적

작은도서관명	건축 면적(㎡)
꿈드리	110
꿈이있는나무	347
노송	919
맑은누리	165
무지개	135
열린점자	299
인후비전센터	368
전주	110
전주책마루	996
큰나무	179
팔복	320
평화꿈틀	172
호성	148
전체 면적	4,268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은 도서관'은 작게는 110㎡에서 크게는 996㎡까지 다양한 면적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 '작은 도서관' 하나하나를 작지만 이를 모두 합하면 4,268㎡이나 된다. 이 면적은 전주시립도서관의 본관 면적보다는 작지만 분관 가운데는 이만한 면적의 건물을 보유한 곳이 없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공간의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주고 있다.

2. 예산 및 조직구조

가. 예산

<표 3>은 RCPL의 2008년도 예산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RCPL의 2008년도 예산 내역

수입 내역	수입 액수(\$)	지출 내역	지출 액수(\$)
카운티 배당금	17,335,359	인력 운영비	11,406,475
주 지원금	721,523	자료 구입비	3,391,383
기타 지정펀드	1,104,925	운영비	2,992,839
전년 이월금	7,000,767	차년 이월금	8,371,877
합 계	26,162,574	합 계	26,162,574

〈표 3〉을 살펴보면 카운티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도서관에 배당하는 배당금이 17,335,359불이고 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721,523불이며, 기타 여러 펀드로부터 기탁받은 예산은 1,104,925불로 나타나 있다. 전년도 이월금을 제외하면 카운티 배당금이 수입액의 90%를 차지하고, 각종 펀드에서 받는 돈이 6%가량을 차지하며, 주 지원금이 4% 가량을 차지한다.

전체 지출내역 2,612,2574불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인력 운영비로서 11,406,475불이고 자료 구입비는 3,391,383불이며 기타 운영비가 2,992,839불이다. 이중에서 차년 이월금을 제외시키면 실제 지출액은 17,750,697불이고 이 가운데 인력운영비가 64%, 자료구입비가 19%이며 기타 운영비가 17%를 차지한다. 2008년도 수입 내역을 2008년도 한국화폐의 가치로 환산¹⁸⁾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의 2008년도 수입 내역과 비교한 것이 〈표 4〉이다.

〈표 4〉 비교 대상 도서관 수입 내역 비교(단위 : 천원)

전주시립도서관			RCPL		
수입 내역	액수	비율(%)	수입 내역	액수	비율(%)
국비	48,900	2	카운티 배당금	19,120,900	66
분권교부세	244,000	5	주지원금	795,840	3
시비	4,380,587	93	기타 지정펀드	1,218,732	4
			전년 이월금	7,721,846	27
합 계	4,673,487	100	합 계	28,857,318	100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시비가 93%이고 국비가 2%를 차지한다. 국가에서 시에게 이양한 예산인 분권교부세는 5%를 차지한다. RCPL의 경우 카운티 배당금이 66%로 가장 많고 지정펀드와 주 지원금이 각각 4%와 3%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지정 펀드에서 제공하는 예산이 있다는 점이다.

〈표 5〉는 RCPL 예산 가운데 차기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액수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여 전주시립도서관과 비교한 것이다.

〈표 5〉 비교대상 도서관의 지출내역(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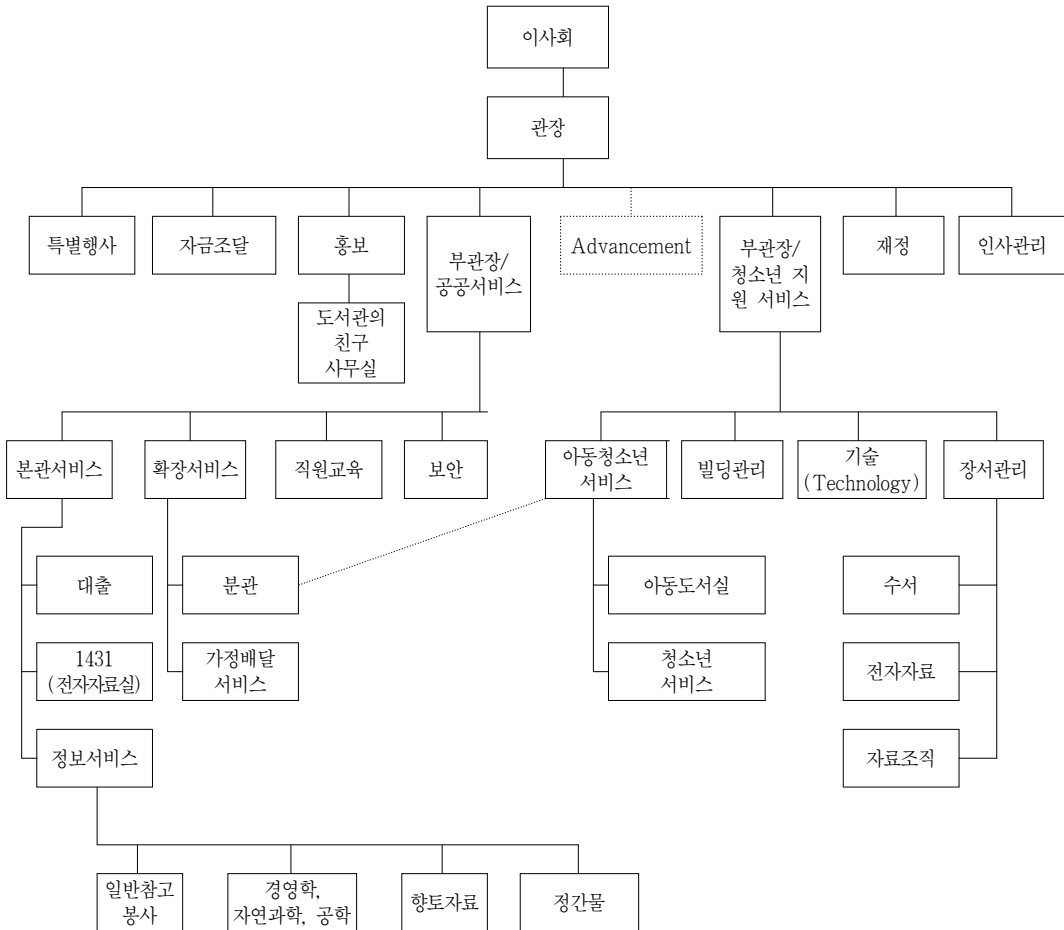
지출 내역	전주시립도서관		RCPL	
	액수	비율(%)	액수	비율(%)
인력 운영비	2,908,607	62	12,581,341	64
자료 구입비	510,000	11	3,740,695	19
기타 운영비	1,254,880	27	3,301,102	17
합 계	4,673,487	100	19,623,138	100

18) 2008년도 평균 원달러 환율인 1,103원으로 환산함.

전주시립도서관의 인력운영비는 지출액의 62%로 RCPL의 64%와 유사한 수준인데 반하여 자료구입비는 지출액의 11%로 RCPL에 비하여 상당히 적고, 대신 기타 운영비가 27%로 RCPL에 비하여 10%나 많다. 두 도서관 자료구입비의 비율도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자료 구입비 총액을 비교해보면 RCPL의 자료구입비는 전주시립도서관의 7배 가량이나 된다. 전주시립도서관의 자료가 양과 질이 RCPL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에도 자료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는 사실은 RCPL과의 자료의 수준차가 향후에 계속 더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나. 조직구조

〈도표 1〉은 RCPL의 조직구조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도표 1〉 RCPL 조직도

조직도를 보면 이사회(Board of Trustees)¹⁹⁾의 아래에 관장이 위치하고 관장의 아래에 2명의 부관장이 있다. 그중 1명의 부관장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데 본관 서비스, 확장 서비스, 직원 교육, 보안 등을 포함한다. 그중 본관 서비스는 대출, 전자자료실, 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확장 서비스에는 분관 관련 업무 및 장애인 가정에 대한 도서 배달 등을 포함한다. 다른 1명의 부관장은 아동청소년 서비스, 빌딩관리, 테크놀로지(주로 컴퓨터), 장서관리 등을 담당한다. 아동청소년서비스에는 아동도서실 서비스와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분관들과 협조가 수반된다. 장서관리서비스에는 수서, 전자 자료, 자료 조직 등이 포함된다. 또 도서관장이 부관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는 업무가 있다. 그 속에는 특별 행사, 자금 모집, 홍보, 재정관리, 직원관리 등이 포함된다.

조직도상 관장 위에 이사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도서관에 있어서 관장의 권력은 막강하다.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장은 직원들의 월급까지 결정하거나 고용 및 파면을 결정할 수 없지만 RCPL 관장은 위원회를 통하여 인사 문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직원 수를 나타내는 개념 가운데 FTE(full time equivalent)가 있다. FTE는 전임직원들과 파트타임 직원들이 특정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파트타임 직원들의 전체 업무시간을 전임 직원의 업무시간에 합산하여 몇 명의 전임 인력에 해당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다. 다음 <표 6>은 RCPL의 2009년도 업무별 직원 수를 FTE 개념으로 나타낸 것이다.

FTE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시스템 관리자가 8.06명, 재정담당자가 5.00명, 빌딩관리 9.75명, 도서관의 친구 담당 3.21명, 홍보담당 4.00명, 인사관리 4.00명, 컴퓨터 9.48명, 본관 시스템 관리 4명, 대출 21.92명, 정보서비스 29.99명, 전자정보실 7.90명, 아동청소년서비스 행정 3.00명, 아동도서실 12.07명,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장서관리 14.53명, 보안 13.47명이다. 또 10개의 분관에 각각 4.87명, 6.43명, 10.20명, 1.96명, 9.12명, 16.39명, 16.89명, 13.20명, 17.16명, 5.60명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가진 직원들의 숫자를 보면 시스템 관리자가 4.00명, 재정담당자가 0.00명, 빌딩관리 0.00명, 도서관의 친구 담당 0.00명, 홍보담당 0.00명, 인사관리 1.00명, 컴퓨터 2.00명, 본관 시스템 관리 2명, 대출 2.00명, 정보서비스 23.35명, 전자정보실 3.00명, 아동청소년서비스 행정 2.00명, 아동도서실 4.65명, 수서·정리·장서관리 4.00명, 보안 0.00명 있고 10개의 분관에 각각 2.00명, 1.00명, 1.27명, 2.19명, 0.00명, 2.19명, 4.37명, 4.37명, 3.19명, 4.37명, 1.00명이 근무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인력이 근무하는 분야는 정보서비스 업무로 29.99명이 근무한다. 이어서 대출 21.92명, 장서관리 14.53명, 보안 13.47명, 아동도서실 12.07명 등의 순이고 나머지 업무는 10명 이내의 인력이 근무한다. 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가진 직원들이 3명 이상 근무하는

19) RCPL 이사회의 이사들은 기업인이나 시민들로 구성되는데 급료를 받지 않고 일한다.

곳은 정보서비스 업무가 23.35명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아동도서관 4.65명, 시스템관리업무 4.00명,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업무가 각각 4.00명이고 전자정보실 3.00명이 근무한다.

〈표 6〉 RCPL업무별 담당직원 수

인력 유형	플타임 사서직	파트 타임 사서직	파트타임 사서의 업무시간	플타임 사서에 해당하는 인원	비사서직	파트타임 비사서직	비사서직 의 업무시간	플타임 비 사서직에 해당하는 인력	플타임 전체직원	파트타임 전체직원	전체직원	플타임 직원에 해당하는 인력
시스템경영자	4	0	0.00	4.00	2	3	77.25	4.06	6	3	9	8.06
재정담당	0	0	0.00	0.00	5	0	0.00	5.00	5	0	5	5.00
발딩관리	0	0	0.00	0.00	8	4	65.50	9.75	8	4	12	9.75
도서관의 친구	0	0	0.00	0.00	3	1	8.00	3.21	3	1	4	3.21
홍보	0	0	0.00	0.00	4	0	0.00	4.00	4	0	4	4.00
인사관리	1	0	0.00	1.00	3	0	0.00	3.00	4	0	4	4.00
기술	2	0	0.00	2.00	7	1	18.00	7.48	9	1	10	9.48
본관 시스템관리	2	0	0.00	2.00	2	0	0.00	2.00	4	0	4	4.00
대출	2	0	0.00	2.00	11	22	334.63	19.92	13	22	35	21.92
정보봉사	22	6	50.75	23.35	3	8	136.38	6.64	25	14	39	29.99
전자자료실	3	0	0.00	3.00	3	5	71.25	4.90	6	5	11	7.90
청소년서비스	2	0	0.00	2.00	1	0	0.00	1.00	3	0	3	3.00
아동도서	4	4	24.50	4.65	5	8	90.55	7.41	9	12	21	12.07
수서 및 정리	4	0	0.00	4.00	10	1	20.00	10.53	14	1	15	14.53
보안	0	0	0.00	0.00	7	14	242.50	13.47	7	14	21	13.47
확장봉사	2	0	0.00	2.00	3	1	20.00	3.53	5	1	6	5.53
분관1	1	0	0.00	1.00	2	4	70.00	3.87	3	4	7	4.87
분관2	1	1	10.00	1.27	3	4	81.00	5.16	4	5	9	6.43
분관3	2	1	7.00	2.19	5	8	113.00	8.01	7	9	16	10.20
분관4	0	0	0.00	0.00	1	3	36.00	1.96	1	3	4	1.96
분관5	2	1	7.00	2.19	4	6	110.00	6.93	6	7	13	9.12
분관6	4	2	14.00	4.37	7	12	188.00	12.01	11	14	25	16.39
분관7	4	2	14.00	4.37	7	13	207.00	12.52	11	15	26	16.89
분관8	3	1	7.00	3.19	5	11	188.00	10.01	8	12	20	13.20
분관9	4	2	14.00	4.37	7	13	217.00	12.79	11	15	26	17.16
분관10	1	0	0.00	1.00	2	5	97.50	4.60	3	5	8	5.60
총계	70	20	148.25	73.95	120	147	2391.55	183.77	190	167	357	25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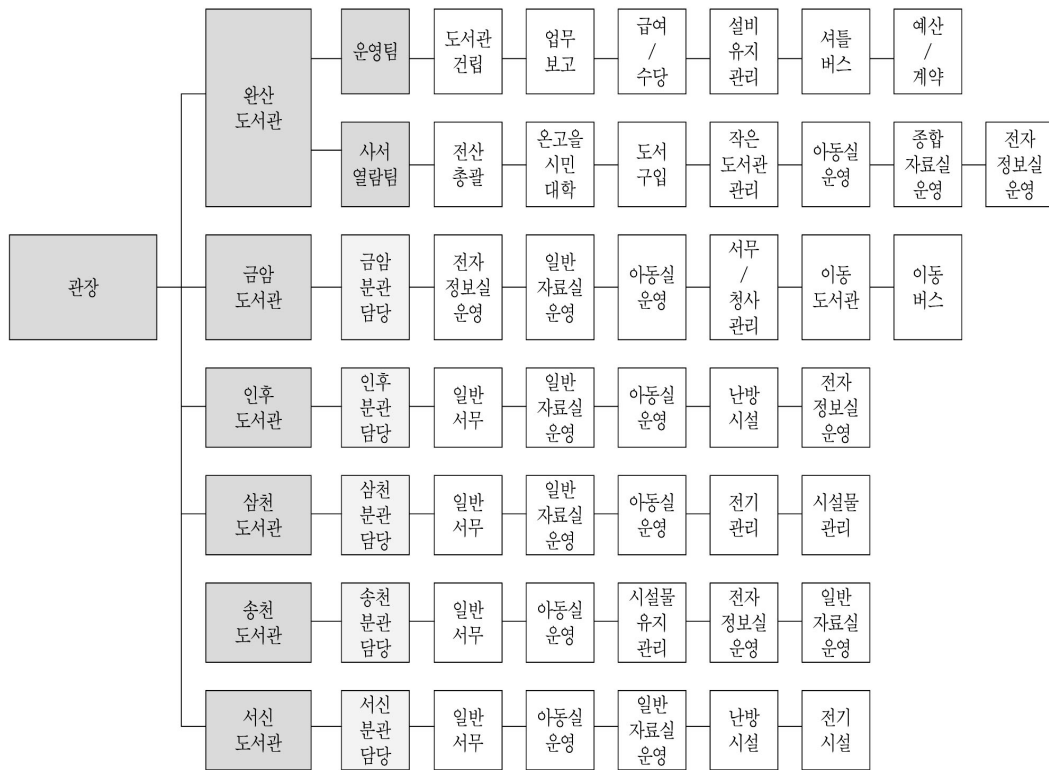
〈도표 2〉는 전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시립도서관 조직도이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조직이 RCPL에 비하여 단순하고, 직원수가 적어 각 부서마다 한 명씩만 근무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RCPL에서는 훨씬 많은 인력이 근무한다. 구체적으로 RCPL에서는 257.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직원이 53명이 근무하고 보안을 맡은

청경이 모두 18명 근무하고 있어 모두 71명이 6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전주시립도서관의 직원수는 RCPL 직원수의 28%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의 직원들은 본관인 완산도서관에 관장을 포함하여 16명이 근무하고 각 분관에 7~8명씩 근무하고 있다.

RCPL의 10개의 분관의 서비스 인력은 도서관마다 다양하여 근무 인력이 적게는 1.96명에서 많게는 17.16명까지 근무한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의 각 분관의 서비스 인력은 거의 일정하다.

RCPL과 비교하여 볼 때 전주시립도서관의 직원수는 너무 적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표 2> 전주 시립도서관 조직도

3. 정보매체 및 이용 현황

가. 정보매체

<표 7>은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소장한 정보매체를 표시한 것이다.

RCPL 홈페이지에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2008년도 도서 소장량은 1,136,408만 권이고 페이지퍼저

널은 935종, 온라인 잡지는 15,341종을 구독하고 있다. 또한 85,366건의 DVD, CD, 비디오 자료와 더불어 400대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81건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은 같은 해에 62만권 가량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페이퍼 잡지는 70종, 비디오, CD, DVD와 같은 전자자료는 15,423종을 구독 및 소장하였고, 온라인 잡지는 전혀 구독하지 않았다. 이용자용 컴퓨터는 142대를 보유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구독하고 있지 않았다.

〈표 7〉 비교대상 도서관의 정보매체

	RCPL(2008)	전주시립도서관(2008년도)	시립도서관(2009년도)
소장 도서	1,136,408권	624,328권	662,274권
페이퍼 잡지 ²⁰⁾	935종	70종	65종
온라인 잡지 ²¹⁾	15,341	없음	없음
비디오, CD, DVD	85,366개	15,423개	15,423개
이용자용 컴퓨터	400대	142대	158대
보유한 전체 컴퓨터	520대	189대	212대
데이터베이스	81건	없음	없음

도서의 숫자를 비교하면 전주시립도서관이 절반 이상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도서의 질적인 면에서 보면 수준 차이가 크다. 본 연구자가 오랜 기간 동안 RCPL 본관의 서가를 관찰하면서 받은 인상은 거의 모든 도서들이 외형적인 면에서도 아주 양호하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훌륭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전주 시립도서관 본관의 도서들은 상당수가 신간으로 교체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RCPL의 경우 많은 도서를 기증받지만 웬만한 도서는 이미 소장하고 있어 기증 도서의 대부분을 도서관에 소장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 그 결과 해마다 65,000불 이상이 마련되는데 이를 RCPL에 기증하여 신간 도서를 더 구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서들도 외형이 거의 신간 도서 수준이었던 것도 상당수 있었고 내용이 좋은 도서들도 많았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소장한 정보매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작은 도서관'을 통하여 서비스를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8〉은 전주시 '작은 도서관' 장서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8〉을 보면 13개 '작은 도서관'에서 적게는 2,500권에서 많게는 22,000권까지 소장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은 처음에 개관할 때 받는 지원금 외에 연간 1,200만원 가량의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를 시립도서관 예산에서 제공한다. 전주 책마루도서관의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는 지원받지 않지만

20) 이는 'magazine titles in print'을 번역한 용어임.

21) 이는 'magazine titles online'을 번역한 용어임.

대기업에서 기증받은 건물과 새 책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도서들을 특히 많이 소장하고 있다. 13개 '작은 도서관'의 도서를 모두 합하면 10만 권 정도가 된다.

〈표 8〉 전주시 '작은 도서관' 장서수

작은도서관명	장서 수
꿈드리	3,700
꿈이있는나무	5,566
노송	8,500
맑은누리	2,500
무지개	7,728
열린점자	10,678
인후비전센터	7,693
전주	6,768
전주책마루	22,000
큰나무	5,272
팔복	7,578
평화꿈틀	5,617
호성	7,040
전체 장서 수	100,640

나. 이용 현황

〈표 9〉는 비교 대상 도서관의 주요 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RCPL의 연간 방문자는 2,102,097명이나 되고 연간 대출 건수는 3,375,549건이다. 공공도서관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리치랜드 카운티에 저소득 계층의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RCPL의 이용자는 흑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²⁾

〈표 9〉 비교대상도서관의 이용현황

		RCPL	전주시립도서관 (2008년도)	시립도서관 (2009년도)
연간 방문자수		2,102,097명	2,909,570명	3,197,688명
연간 대출건수		3,375,549명	1,088,651명	1,523,087명
주민중 회원비율		70%	20%	24%
독서회 참가자	어린이	22,042명	890명	890명
	청소년	2,849명		
	어른	6,767명		

22) 본 연구자가 20회 이상 도서관을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절반 이상의 이용자가 흑인이었다.

2008년도 기준으로 전주시립도서관의 연간 방문자수는 2,909,570명인데 반하여 RCPL 이용자는 2,102,097명으로 전주시립도서관 방문자수가 RCPL 방문자수보다 많다. 또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2009년에 연간 방문자수가 319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도서관에 오는 방문자가 전주시립도서관보다 적은 것은 서비스 대상인 리치랜드 카운티의 인구가 전주시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간 방문자수가 RCPL보다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매체가 우수하면 대출건수도 RCPL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RCPL에 비하여 자료의 질이 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건수는 RCPL보다 훨씬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구 대비 방문자수는 RCPL이 전주시립도서관보다 많고,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문맹률이 15%에 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전주시립도서관이 장서의 질을 포함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도서관을 더 신설할 경우 향후에도 방문자수를 많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CPL의 경우에 2008년 서비스 대상 주민 가운데 도서관 회원 비율이 70%인데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20% 밖에 되지 않는다.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2009년에 약간 증가한 24%의 회원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RCPL에 비하여 훨씬 낮은 사실을 감안하면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회원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도서관 이용 통계를 비교하여 보면 독서회에 참가하는 참가자수에서 큰 차이가 있다. 리치랜드 카운티의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8년도 RCPL에서 독서회에 22,000명 이상이 참여하는데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의 경우 89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향후에 해당 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RCPL의 경우 독서클럽 프로그램을 시작할 무렵에 가수 등을 초청하여 공연하고 그 자리에서 독서클럽에 가입하도록 유도한다. 독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중에는 많은 상품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수많은 독서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4. 홍보 및 외부 자원 활용

RCPL에서는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한다. RCPL에서 홍보를 통하여 기금을 모으고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도서관의 친구', '도서관재단'을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한다.

'도서관의 친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가지 회비 중 본인이 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회원의 종류에는 회비에 따라서 'Bookmark(25불 내지 49불)', 'Book Worm(50불에서 99불)', 'Book Collector(100불에서 249불)', 'Reserve List(250불에서 499불)', 'First Edition(500불에서 999불)', 'Conservator(1000불 이상)' 등의 등급이 있다.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게 회원의 종류를 선택하여 그에 맞는

회비를 내면 된다.

이렇게 ‘도서관의 친구’가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고, 도서관과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며, 특별한 초대를 받을 수 있고,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료 판매 행사 기간의 첫 날에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도서관의 친구’가 되도록 유도하고 도서관의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도서관의 친구’가 되면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매년 4회씩 열리는 도서 판매 행사 준비를 위하여 자주 모임을 갖는다. 책이나 전자자료 등의 기증을 받고 도서 세일 행사를 통하여 매년 65,000불 이상을 마련하여 도서관에 기증한다. 또한 도서관과 사우스캐롤라이나 문학에 기여한 인사에게 ‘루시 햄튼 보스틱상(Lucy Hampton Bostick Award)²³⁾’을 수여한다. 연례행사인 ‘오거스트 베이커스 더즌(August Baker’s Dozen)²⁴⁾’을 지원하고, 출판물을 통하여 도서관을 광고하고 기금 모금을 후원한다. 도서관의 공식적 예산 책정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서관의 친구’ 예산을 통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도서관 재단’이다. 기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기 이름을 입력하여 두면 도서관에서 이메일을 보내 기금을 요청하고 기금을 내면 이 기금을 도서관재단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런 방식의 ‘도서관 재단’ 모금 활동을 통하여 본관에 있는 향토자료실(Local History Room at the Main Library), 어린이 자료실과 이야기 들려주기방,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커닝햄 모테이스 대활자 도서 코너(Cunningham-Monteith Large Print Center)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RCPL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계속적으로 모집하여 활용한다. 연간 800명 이상이 15,000시간 이상을 자원 봉사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250,000불 가량 되고 15년 이상 또는 1,5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은 20명이나 된다. 이 외에도 누구라도 판매 가능한 도서, CD, DVD 등을 연중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RCPL에서는 어떤 사람이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새겨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도서관의 홀에 등급별로 나누어 표시하여 덩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대한 의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15년 이상 또는 1,5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시민들이 20명이나 배출되었다.

다음 <표 10>은 전주시립도서관과 RCPL의 자원봉사 내역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23) 도서관에서는 전임관장인 Bostick를 기념하여 루시 햄튼 보스틱 상을 수여한다.

24) RCPL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문헌정보학과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연례 스토리텔링 페스티벌이다. 2010년도에는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2009년에 본 연구자가 이 행사 기간에 참가하였을 때 RCPL 주변에서 유명한 작가의 강연 및 사인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책 한권의 내용을 20여명의 학생들이 분담하여 스토리텔링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

〈표 10〉 비교대상 도서관의 자원봉사 실태²⁵⁾

	RCPL(2008)	전주시립(2009)
자원봉사자수	800명 이상	2,738명
전체 자원봉사 시간 (환산액)	15,000시간 (25만 불)	정확한 데이터 없음
15년 이상 또는 1,500시간 이상 봉사자	20명	없음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본격적으로 2009년에 자원봉사회를 결성하였는데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는 104명이고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자원봉사를 한 사람은 모두 2,634명으로 전체 자원봉사자는 2738명으로 나타났다.²⁶⁾ 따라서 800명 이상으로 통계가 잡힌 RCPL의 자원봉사자수와 비교하면 오히려 전주시립도서관의 자원봉사자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역의 ‘작은 도서관’은 거의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고²⁷⁾ 이에 관한 통계는 이 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자원봉사자의 수는 이보다 더 많다. 따라서 미국의 RCPL처럼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공표하면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RCPL에서는 ‘Friendly Forum’을 계간으로 발간한다. 6면으로 구성되는데, 중요한 소식과 행사,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홍보가 주 내용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도서관의 친구’의 회원을 모집하고 관련 행사를 홍보한다. RCPL에서는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할 뿐만 아니라 달력으로 만들어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서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지원을 이끌어낸다.

이에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기부금 제도를 통하여 예산으로 활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IV. 논 의

이제까지 도서관의 건물, 예산 및 조직구조, 정보 매체 및 이용 현황, 홍보 및 외부자원 활용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주시립도서관과 RCPL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25)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제공한 통계 가운데 2008년 자원봉사자 관련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2009년 통계만 제시하였다.

26) 전주시의 전체 자원봉사자의 수는 2008년도 3만8,963명이다. 전주일보 11월 26일자 기사,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58>> [인용 2010. 2. 15].

27) 전주시의 ‘작은 도서관’ 들은 전주책마루도서관의 계약직 사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원봉사자가 운영한다.

도서관의 건물 측면을 볼 때 RCPL에 비하여 전주시립도서관 본관은 상대적으로 넓고 협소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교통 면에서 외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같은 지역인 전주시내의 신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전북도청은 건설과정에서 막대한 사업비(1,728억원)가 투입되고 도지사 집무실이 너무나 호화스러워 정부가 전라북도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30억원이나 삭감한 바 있다.²⁸⁾ 그런데 2009년 한 해에 300만명 이상이 방문한 전주시립도서관의 중심인 시립도서관 본관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외진 곳에 초라하게 존재하여 대조가 된다. 이제 전주시립도서관 본관 이전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전주시립도서관의 특정 분관에서 본관이나 다른 분관의 도서를 대출 신청할 경우 해당 도서를 신청한 분관으로 배달하여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립도서관 본관의 넓은 건물과 인테리어는 시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RCPL의 도서관 본관은 지역민의 자존심이자 자랑이 되고 있다. RCPL에서 우수한 도서관 환경을 만들고 이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카운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카운티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역사적 전통 때문만이 아니고 카운티나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RCPL은 자체적으로 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입시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기부금을 납부하고,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예산 및 조직구조의 측면에서 전주시립도서관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예산과 직원들을 보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산이나 인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전주시립도서관의 관계자들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 구체적 서비스의 내용을 시민과 행정당국에게 잘 홍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정원 문제와 예산 문제 때문에 직원수를 증가시키기 힘든 사회적 현실에서 문헌 정보학계에서는 공공도서관이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큰지 밝히는 연구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직원 정원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RCPL에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활용하는데 반하여 전주시립도서관에서는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활용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전주시에서는 공익적 사업에 쓰고자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전주시에서 전주시 학생이 서울 지역에 유학하는 데 필요한 서울 지역 기숙사 건립 사업에 2008년도 19억 가량의 기부금을 모금한 바 있고 간헐적으로 체육회 육성을 위한 기부금을 모금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 제도는 두뇌가 좋거나 시도 대표급의

28) 한국일보 2010년 5월 4일자 기사,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11/h2009112422305921950.htm>> [인용 2010. 5. 4].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지만 많은 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많은 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 리치랜드 카운티는 소득 면에서 우리나라 평균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훌륭한 공공도서관 건물과 양질의 정보매체를 보유하고, 높은 이용량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RCPL의 사례를 보면 도서관의 질적 수준은 지역민의 소득과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실감하게 된다.²⁹⁾ 미국 동남부에서 소득이 높은 많은 지역들을 제치고 소득이 아주 낮은 리치랜드 카운티가 '25만 내지 50만 미만의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미국 전체 10위 안에 포함된 동남부 최고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소득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서관 관계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훌륭한 도서관을 보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은 본관의 시설, 주민중 도서관 회원 비율, 대출횟수, 독서클럽 참가자수 등의 측면에서 보강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립도서관의 부족한 점들은 대부분 예산과 인력의 부족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전주시민들이 전주시립도서관을 많이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정보매체가 부족하여 대출량이 적고,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등에 대한 시도의 예산 투자가 적어 독서회 등 각종 프로그램의 참가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정보매체의 양과 질을 개선시키고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면 대출건수나 독서회 등의 참가자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미국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의 여러 측면들을 비교·분석하고 논의한 결과 RCPL이 예산, 정보 매체, 이용현황, 홍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시립도서관의 '지역민의 회원수 비율', 정보 매체의 질과 양, 대출건수, 독서회 참가자수, 홍보 등이 RCPL에 비하여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수는 전주시립도서관이 많았고 인구를 감안하지 않은 연간 방문자 수도 전주시립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기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29) 우리나라에서도 부자 도시로 수위를 다투는 울산시가 9개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전과 광주도 각각 17개와 16개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다. 울산노동뉴스 2009년 11월 25자 기사.

[http://www.nodongnews.or.kr/\(X\(1\)S\(wvwvscywy0ccxbwujhuutah\)A\(MrCfM7bqygEkAAAAZjk3M2YzYTEtYmU0Zi000DiYlWE4YmYtYjkzMmEONGU2NTIyovsD2rzinx4DWMXSbQycMkHjuk01\)\)/News/View.aspx?psid=4967&page=14&type=all&totalid=7553&keyword=&keyfield=](http://www.nodongnews.or.kr/(X(1)S(wvwvscywy0ccxbwujhuutah)A(MrCfM7bqygEkAAAAZjk3M2YzYTEtYmU0Zi000DiYlWE4YmYtYjkzMmEONGU2NTIyovsD2rzinx4DWMXSbQycMkHjuk01))/News/View.aspx?psid=4967&page=14&type=all&totalid=7553&keyword=&keyfield=) [인용 2010. 2. 15].

1. 향후에 전주시립도서관에서도 양질의 정보매체와 공간을 더 확보하고,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 본관의 이전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용자의 대출 편리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2. 독서프로그램을 더욱 보강하고 적극적으로 광고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도서관 인력, 예산의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향후에 공공도서관에서의 적극적인 도서관 기부금 모집 활동도 도서관 자금 확보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공공도서관의 수, 건축 면적, 예산 및 조직구조, 정보자료 및 이용현황, 홍보 등에 대하여 주로 계량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연구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RCPL과 전주시립도서관 사서들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향후에 더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각종 도서관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통하여 각종 도서관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